

2024학년도 PROTOTYPE 모의고사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해설

빠른 정답

45453

21352

11353

23114

1. 윤리학의 분류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나'는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나'가 비판하는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이론 규범 윤리학적 접근이 윤리학에서 필요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선지 분석]

- ① 도덕 현상을 가치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② 도덕 명제에 사용된 언어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③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실천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 ④ 도덕 판단을 정당하기 위한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하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실천 윤리학과 혼동하지 않게 주의하자, 실천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학이다.) 따라서 이론 규범 윤리학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에 비판하는 입장인 선지이기에 이 선지는 옳다.
- ⑤ 도덕 관행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기술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이를 지양하는 윤리학이 아닌 지향하는 윤리학이다.

2. 동양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선지 분석]

- 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의 자세는 공자와 노자 모두 인정한다.
- ② 차별 없이 만물을 관조하는 자세는 노자만의 입장이다. 유교는 분별적 사랑을 주장하였다.
- ③ 소국과민을 이상적 사회로 보았던 사상가는 노자이다. 공자의 이상적 사회는 대동사회이다.

큰 도가 행해졌을 때 천하에 공의가 구현되었다.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신의 화목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은 여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었고, 젊은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어린아이라도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았고, 고아·홀아비·병든 자도 모두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남자는 남자의 직분이 있었고, 여자는 여자의 직분이 있었다. 재화가 헛되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결코 자기 것으로 숨겨 두지 않았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았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집집이 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았다. 이런 상태를 '대동'이라고 한다. [공자, 예기]

- ④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인 무위지치를 진정한 통치 방식으로 보는 사상가는 공자가 아닌 노자이다.
- ⑤ 통치자가 인위적 규범과 덕을 통해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자만의 입장이다. 도가는 인위적 규범을 벗어나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인 무위지치로 통치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3. 사랑과 성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에리히 프롬이다.

[선지 분석]

ㄱ.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행위는 ‘소유 양식으로 말해지는가, 존재 양식으로 말해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은 그를 소생시키며 그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사랑은 소생과 성장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목을 조여서 마비시키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이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상 사랑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내용의 오용된 표현일 뿐이다.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ㄴ.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다.

ㄷ.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유용성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프롬에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한 헌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ㄹ.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상대의 생동감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서양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사례>에서 고등학생 A는 반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우를 도왔다. 이에 대해 칸트는 고등학생 A가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려는 의지인 선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향성에 근거하여 학우를 도왔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선의지이다. 모든 학우를 도왔는가 돕지 않았는가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선지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참이 될 수 있는가? 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는 사회 전체의 쾌락의 증진을 추구하는데 모든 학우를 돕는 것이 사회 전체의 쾌락의 증진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만약 내가 모든 학우를 도울 때 도움받은 학우의 쾌락의 증대가 나에게 발생한 고통보다 작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이를 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칸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행복이 아닌 선의지이다.

③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에 따르지 않은 행위도 단순히 의무에 일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도덕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선의지에 따라 행위하여야만 한다.

④ 공리주의자가 주장할 내용이다.

⑤ 칸트에게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는 선의지에 비롯된 행위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비롯된 행위인가?를 도

덕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선지는 옳다.

5. 종교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선지 분석]

①, ②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전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비록 근대인들이 스스로를 비종교적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대인의 인식과 행동의 바탕에는 종교적 인식이 존재한다. 결혼과 제사 같은 것이 성스러움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종교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종교적 인간이 경험하는 성스러운 체험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활동과 무의식에 의한 비합리적인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때 무의식에 의한 비합리적인 체험은 신화적 이미지 및 형상과 매우 유사하다.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실존적 상황들, 특별히 위기에 의한 산물로서 문제를 야기하며 세속적 인간이라고 할 지라도 실존으로부터 비롯된 무의식의 비합리적 체험을 하며, 이는 신화에 대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인간은 상징을 이해하며 우주적인 것, 우주론적으로 완성된 서사와 실재에 참여하는데 반해 세속적 인간은 그 상징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우주적인 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세속적 인간이 종교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과 세속에서의 속됨의 분리를 지향하지 않는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지향성을 인간의 근본적 성향으로 보았으며 세속적인 삶에서도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성과 속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주장했다.

⑤ 종교적 인간은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성스러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종교적 인간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되며 그때 우주 전체는 성현(聖賢)이 되는 것이다.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도 의연히 한 개의 돌이다. 즉 걸어서 볼 때는 그 돌을 다른 일반적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돌이 성스러운 것으로 계시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돌의 현실이 초자연적 실재로 변한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聖賢)되는 것이다. [엘리아데, 성과 속]

6. 삶과 죽음의 윤리

[제시문 설명]

같은 플라톤이고 읊은 에피쿠로스이다.

[선지 분석]

① 플라톤은 죽음 이후의 세계인 내세를 인정하였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인가? (O)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인 내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2019 년도 EBS 수능특강]

- ② 플라톤에게 죽음은 감각에 의해 인식되는 육신이 소멸하고 지성에 의해 인식되는 영혼은 불멸하여 영혼이 이데아계에서 영혼 자체에 의해 사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앎은 인간이 불멸을 갈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앎을 통해 인간의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면 가사성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앎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주기 때문이다.[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 ④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일체의 감각 능력을 상실하며 쪼갤 수 없는 원자들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서 인식 능력도 상실한다.
- 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모두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이라고 보지 않았다. 플라톤에게 죽음은 현상계의 산물인 육체에 대한 해방이며 죽음 이후에 온전히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으며 일체의 감각 능력과 인식 능력을 상실했기에 고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고통을 발생시키는 이유인 것이다.

7. 과학 기술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경계해야한다 라는 입장이고, 을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이다.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과학 기술의 유용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가지게 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적 숙고와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한다. [2022년도 EBS 수능특강]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경계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더 이상 과학기술은 낙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사회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수반하며 과학 기술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선지 분석]

- ① 갑이 을에게 비판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② 을이 갑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을이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 ④ 을이 갑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갑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8. 시민 불복종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 ㄱ.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쪽 경계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다. 법의 안쪽 경계선은 곧 합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싱어는 위법행위인 시민 불복종을 수행하기 앞서서 가능하면 민주주의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ㄴ. 도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다수의 결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현실에서 올바른 정치적 표결을 거쳐 다수가 만든 법일지라도 그 법이 정의로운 것임을 뜻하지는 않으며 그 법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법과 제도가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한다.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현실적인 정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투표하는 다수자는 지식이나 판단력의 결핍에 의해서 또는 편협하고 이기적 관점의 결과로 인해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롤스, 정의론]

- ㄷ. 어떤 법률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되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롤스는 현실에서의 법과 정책,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효율성과 민주 체제를 위해서 한계를 넘지 않는 결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제도를 지키려는 우리의 자연적 의무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라도 그것이 부정의의 어떤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따르도록 하며 적어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것에 반대하게 하지는 못하게 한다. 정의로운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 원리인 다수결 규칙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우리는 보통 정의로운 체제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로 인해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롤스, 정의론]

- ㄹ. 롤스는 민주 체제를 정당화 하는 원칙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주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장하지 않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관에 따를 때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에서 공유된 정의관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도출한 정의의 원칙을 공유하는 것이다.

9. 과학 기술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생식 세포 치료의 찬성을 주장하고 을은 생식 세포 치료의 반대를 주장한다.

[논점 분석]

논점	갑	을
논점1. 체세포 삽입을 통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하는가?	O	O
논점2. 유전병 치료를 위한 생식세포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O	X
논점3. 후세대의 의지 반영 여부가 생식세포 치료의 허용에 영향을 끼치는가?	X	O

갑, 을 모두 유전병 치료를 위한 체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유전병 치료를 위한 생식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논점3은 결국 논점2를 찬반 여부를 뒷받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갑과 을의 의견이 다른 핵심 쟁점은 논점2이며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0. 환경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레오폴드, 병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ㄱ. A : 칸트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조건을 이성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싱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조건을 쾌고감수능력의 유무로 판단하였고 레오폴드는 대지의 모든 구성원과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며 모든 성원은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유 능력이 없는 개체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칸트만의 입장이다. (O)

ㄴ. B : 레오폴드는 인간을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나 관리자가 아닌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본다. (X)

ㄷ. C : 싱어는 동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의 이익을 더 많이 증진시킨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전일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상가로서 개별 개체의 존속할 권리 생명적 권리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이 충돌할 경우 개체들의 권리보다 생명 공동체가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일지라도 생명 공동체를 우선하는 행위라면 정당화 될 수 있다. (X)

ㄹ. 칸트에게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이성을 가진 개체이고 싱어에게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개체이다.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로 포함하며 생태계 자체와 생명 공동체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이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한정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세 사상가 모두 동의할 것이다. (O)

11. 직업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선지 분석]

①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으뜸 가치”라고 봤는데,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요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② 청렴은 우리의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다.

③ 정약용은 공직자가 청렴해야만 백성들에게 자애로울 수 있으며 목민관은 청렴을 통해 애민 정신과 백성에 대한 봉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수레꾼을 보내어 목민관을 전송하고 환영하며,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목민관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④ 청렴한 관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⑤ 청렴한 관리는 잘못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

12. 형벌론

[제시문 설명]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 병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베카리아는 형벌 집행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와 범죄의 예방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 : 형벌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며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있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 ② 벤담에게 사형은 필요악으로서 시민 사회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을 촉진하기 위해 사형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칸트는 오직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은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응보여야 하며 처벌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 즉 범죄 예방이나 교화 때문에 내려서는 안된다.
- ④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인정하는 사상가는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모두이다.

13. 담론 윤리

[제시문 설명]

그림의 강연자는 하버마스이다.

[선지 분석]

- ① 규범의 정당성은 전문가 집단의 식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잘 발휘하며 판단해야 한다.
- ② 실제 담론 상황이 이상적 대화 상황에 부합할 때 합리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 실천적 담론의 원칙에 따라 규범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며 이것만이 타당하다.
- ③ 담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과 타인이 제시하는 의견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오류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 ④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평등하게 대화 상황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호 주관성은 개인적 성찰보다는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확보된다.

14. 정보 사회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 사회 구성원의 노력을 역설(力說)하는 제시문이다.

[선지 분석]

- ① 국가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춰야 한다.
- ② 국가 주도의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질적 수준을 약화시킨다고 제시문에서 주장하지 않는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질적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 ③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④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사회 구성원들은 정보 생산에 필요

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역할이 존재한다.

15. 분배 정의

[제시문 설명]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 ㄱ. A : 롤스와 노직 모두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분배 결과에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불평등은 부정하지 않는다.
- ㄴ. B : 타인에 의해 양도받은 재화가 최초 취득이 부정의 하였다면 이는 교정의 대상이 되며 정당한 소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C : 전체 사회의 복지 증진을 명목으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롤스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기본적 자유는 오직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더 큰 자유 자체만을 위해서만 제한 가능하다.

어떤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 자유들은 특정 상황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일관된 자유들의 체제에 맞게 그 요구들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롤스, 정의론 30절]

이 자유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하나의 일관된 자유들의 체제에 각각의 자유가 들어맞도록 자유를 규정하는 제도적 규칙들이 조정되어야 한다.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순익이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롤스, 정의론 32절]

기본적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된다. [롤스, 정의론 107쪽]

- ㄷ. C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모두 가상의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다.

16. 평화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갈통, 을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 ㄱ. 갑 : 구조적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ㄴ. 을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예비조항 5항)

ㄷ. 을 : 평화 실현을 위해서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예비조항 3항)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 상비군의 존재로 인해 각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 경쟁에 도입하게 된다. 군비를 과잉 지출한 국가는 전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며 결국 상비군 자체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원인이 된다. 사람을 죽이도록 또는 죽임을 당하도록 고용되는 것은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비군으로 고용되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에 합치하는 것일 수 없다. 재화의 축적 또한 상비군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상비군은 즉각 폐지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상비군을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급히 서두를 경우 영구 평화의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ㄷ. 갑과 을 : 칸트는 확정 조항을 통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여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 제도를 개선하여 공화 정체가 됨으로써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체가 도입되어야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없고 영구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착취인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해외 원조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이고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권고를 금지하지 않는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고통 받는 사회의 인권 상황을 권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인권 상황 개선의 권고는 온정적 간섭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롤스는 해외 원조 주체가 온정적 간섭주의(부권주의적)으로 해외 원조의 대상에 간섭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보았다.

원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즉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의 “목표”(target)를 규정한다.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부권주의적으로(paternalistically) 행위해선 안 되며,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히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롤스, 만민법]

- ②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할 때 강제력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③ 싱어는 원조를 통해 빈민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원조 주체의 과도한 희생 없이 원조 목표를 달성해야 원조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싱어는 다른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싱어,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⑤ 롤스는 원조의 의무에 따르면 어떤 세금도 없으며 그것이 옳아 보인다고 주장한다.

원조의 의무에 따르면 어떤 세금도 없다. 반면에 목표가 없는 지구적 평등주의 원칙은 세금을 요구한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를 만민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제시문 中]

18. 문화 윤리

[제시문 설명]

용광로 이론의 (가), 샐러드 볼 이론의 (나)를 파악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용광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거대한 용광로, 즉 주류 사회에 융합하여 편입시키려는 관점을 지닌다. 동화주의 입장은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 문화적 역동성이 파괴되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다문화 모형인 샐러드 볼 모형은 인종, 언어,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이주민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존중해 줌으로써 서로가 공존하면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좌표축 분석]

X :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문화 간의 위계를 유지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용광로 이론의 (가)가 샐러드볼 이론의 (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Y : 문화의 다양성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정도는 샐러드볼 이론의 (나)가 용광로 이론인 (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Z : 이민자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는 샐러드볼 이론의 (나)가 용광로 이론인 (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19. 국가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선지 분석]

① A : 홉스는 통치 권력이 절대 군주인 리바이어던에게 귀속되어 양도될 수도 분리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로크는 통치 권력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정치 사회로 들어갈 때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법의 집행권과 자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재판권, 처벌권을 포기하여 모든 사건에서 공동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권력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 사회를 결성하고자 단 순히 합의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야말로 공동체 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결성하는 개개인 간에 실제로 체결되고 또 반드시 체결될 필요가 있는 협정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 치 사회든지 그것을 시작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다수결을 산 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자유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사회를 결성하 기로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직 이것만이 지상에서 모든 합법적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또 출범시킬 수 있었 다. [로크, 통치론]

그리고 로크는 저항권을 주장한다.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만약 입법부가 야심, 공포,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자 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 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 민이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 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로크,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따라서 로크에게 통치 권력은 주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② B, E : 로크가 제기할 비판으로는 옳으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 할 비판으로 옳지 않다. 로크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계약의 산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이 국 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하는 근거를 인간의 본 성에 찾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물이며,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것 또한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금성 생활과 윤리 교과서 中]

③ C :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발생적으로는 국가가 가족 이후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D : 아리스토텔레스가 간과하는 내용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도 국가가 구성된 상호 간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산술적 비례에 따르는 교정적 정의를 재판관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⑤ F : 홉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선 과 악의 어떤 공통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정념에 기초하여 행위 하는데 각자의 욕망과 정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 다. 서로 다른 욕망과 정념의 결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선 또는 악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들은 투쟁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중 략) 자연 상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공통의 기준도 존재하 지 않으므로 투쟁과 전쟁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발견할 수 없다.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20. 예술 윤리

[제시문 설명]

(가)는 예악론이며 예악론을 주장한 사상가는 도덕주의 사상가인 순자이다.

[선지 분석]

- ① 심미주의 사상가의 입장이다.
- ② 심미주의 사상가의 입장이다.
- ③ 음(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제시문 中)
- ④ 예악론을 주장한 순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 ⑤ 백성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이 아닌 백성들의 풍속과 본성을 교화 시키는 목적으로 선왕이 예와 음악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다.

음악(樂)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 을 선하게 할 수 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풍습 과 풍속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와 음악으로 이끌면 백 성들이 화목했던 것이다. [순자, 순자]

출제진

꽃피면 봄오는(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해설

김민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현자의 돌 연구소 연구원)

검토진

unkicetic(연세대 철학과),

김민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현자의 돌 연구소 연구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